

브라민 삶의 장식은 의식, 태도, 시선의 깨끗함 (순수성) 이다.

오늘 밥다다는 브라민 자녀들 모두의 고귀한 카르마의 선을 보고 있고, 이 카르마의 선과 더불어 현재와 미래의 행운의 선들이 어떻게 그어지고 있는지도 역시 보고 있다. 바바는 카르마의 선, 카르마의 역사, 카르마의 계산 내역의 선을 보았다. 사실 자녀인 너희들 모두 행운의 공여자, 카르마의 깊은 원리를 아는 분, 아버지의 직접 유산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행운을 만드는 이, 밥다다는 자녀인 너희 모두에게 이것뿐 아니라 절호의 기회도 역시 주었다. 너희는 행운을 만드는 이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만큼 행운을 한껏 창조해서 모든 성취의 화신이 될 완전한 권리를 가졌다. 권리를 주는 데는 등수가 없고 자유가 있다, 즉 절대적 자유가 있다. 그뿐 아니라 드라마에 따라서 축복 받은 지금의 이때도 역시 너희에게 협조해준다. 너희들 각자에게는 똑같은 양이 있다. 그렇건만 이런 절호의 기회를 갖고서도 너희는 무한한 성취를 각자 등수대로 한계 짓는다. 아버지가 무한하고, 유산이 무한하고, 권리도 무한한데 이 모든 것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등수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나? 이것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 지각에 깨끗함이 없다, 즉 그것이 맑지가 않다. 2. 너희는 모든 행위에 조심스러워하지 않는다, 즉 너희는 세심하지 않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너희에게 등수가 생긴다. 주된 것은 깨끗함이다. 이것은 순수성, 또는 첫 번째 악덕에 대한 승리라고 불린다. 너희가 이미 브라민으로서의 생을 채택했으므로 그것을 주된 토대, 새로움, 영성, 너희 삶의 장식 중 뭐라고 부르든, 그것은 곧 순수성이다. 브라민 삶에서의 도전은 정욕의 정복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고귀한 지식과 고결한 지식의 공여자를 보여주는 증거다. 세상의 브라민들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상투와 성스러운 끈이듯이 참된 브라민들을 나타내는 표시는 순수성과 그들의 행동수칙이다. 너희들의 탄생과 너희의 삶을 나타내는 표시를 영원히 지켜야 한다. 순수성을 지원하는 첫 번째이자 으뜸인 점은 너희들 의식의 순수성이다. 그저 단지 “나는 영혼이다”가 아닌, “나는 순수한 영혼이다!” 라는 것이다. 모든 이가 다 “영혼”이라는 말은 하지만, 항상 “나는 순수한 영혼이다. 나는 고결한 영혼이다. 나는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이다. 나는 특별한 영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브라민 영혼들이다. 너희들 의식 속의 이 순수성이야말로 지원의 형상이다. 그러니 너희는 첫 번째 지원을 강하게 만들었느냐? 너희는 이 직업을 의식 속에 한결같이 간직하고 있느냐? 행위들은 너희의 직업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해진다. 첫째로 너희 의식에 깨끗함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너희의 태도와 눈길에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 너희에게 “나는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이다”라는 의식의 순수성이 있을 때,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에 대한 특별한 칭송은 무엇이나? 완전히 악덕 없고 천상의 16도로 완전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의 자격요건이다. 그런 영혼은 자연스럽게 자아와 남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겠느냐? 그들이 영적인 가족이나 세속의 가족이든 또는 세속적인 의식을 유지하는 영혼이든, 항상 그 영혼들이 최고로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들로, 또는 그들을 숭배받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시선으로 모든 이를 보아라.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들, 즉 영적인 가족에 속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불순한 시선이 있다면 그 경우엔 의식의 기반이 약하다는 뜻이며 이것은 크고도 중대한 매우 심각한 죄가 된다.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 봉사자는 아주 훌륭하다” 또는 “이 선생은 아주 좋다”라는 식의 불순함이나 육체의식의 시선이 있다면, 그들이 가진 좋은 점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고결한 의식과 고귀한 시선의 좋은 점이다. 이 고결한 눈길이 없다면 그들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도 역시 마야의 금빛 노루의 한 가지 모습이다. 그것은 봉사가 아니고, 협조도 아니고, 너희를 다른 모든 이에게서 분리시키는 토대일 뿐이다. 이

측면에 거듭 주의를 기울여라.

그들이 아버지에 의해 도구가 된 선생이든 또는 봉사에 협조하는 영혼인 형제자매들이든, 봉사에 필요한 봉사자 영혼들의 주된 자격요건은 버림과 타파사다. 이 자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모든 이가 버린 자들이며 타파스위라는 시선으로 그들 모두를 보고, 육체의식의 시선으로는 보지 마라. 이것은 고귀한 가족이다. 그러므로 이 큰 죄는 결코 너희가 성취의 화신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없으므로 한결같이 고귀한 시선을 가져라. 이런저런 행위, 생각, 관계, 연결의 결합이나 효과 때문에 끊임없이 격변이 생길 테고 그래서 너희는 결코 완성의 단계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자비로운 영혼이 아닌 죄 많은 영혼이 되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해라. 이 한 가지 악덕에서 다른 모든 악덕들이 자동적으로 생길 것이다. 아직까지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으면 그것의 친구인 화가 먼저 온다. 그러한즉 이 과목을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지 마라. 이것에 대해 부주의해하지 마라. 너희가 겉으로는 이것이 순수한 관계라고, 봉사의 관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죄의 왕족다운 이 형태를 더 키우지 마라. 이 죄에 대해서 누구를 탓해야 하든, 어쨌든 남들을 비난함으로써 너희 스스로 부주의해지는 일은 없게 해라. 너희가 “내가 비난받을 거야”라고 늘 조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종죄에서 풀려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생각, 말, 관계, 연결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종속되는 것도 역시 애착을 나타내는 징표다. 봉사에서의 협조 면에서조차 특별한 예속이 있다면 그것 역시 애착이다. 그 경우 너희가 신호를 받을 때 하나의 신호로 다른 일체의 신호들을 전부 다 끝나게 해라. 만일 너희가 고집을 부리며 뭔가 설명함으로써 너희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애쓴다면 너희가 제 죄를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라. 너희는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선을 더 길게 늘리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계변화의 과업에 참여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자아를 변화시키는 것이 분별력 있는 행위다. 만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냥 그 상태로 놔둬라. 즉 너희 스스로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그 상황의 모든 이름과 흔적을 끝내라. “이것은 어째서 이러한가? 이 일은 왜 그렇지?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나.” 이런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도 같다. 도리어 불길의 더 세차게 번지게 만들고 상황을 더 크게 만든다. 그러므로 마침표를 찍어라. 그것이 존재하느냐 하는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이지 말고 너희의 생각, 말, 연결에 변화를 가져와라. 이것이 바로 이 죄로부터 너희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해하느냐? 브라민 가족 안에 이 산스카르의 이름이나 흔적도 없게 해라. 앗차. 화라는 크나큰 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바바가 나중에 얘기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된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 특히 힘으로 제 스스로를 채우려고 왔다. 뭔가 약한 산스카르가 있다면 그것을 영원히 끝내려고 왔다. 그러니 돌아가기 전에 약한 산스카르를 완성시키고 수료식을 가져라. 너희는 이 축하 행사를 치를 테지? 이것은 특히 더 나이 많은 자들의 그룹이다. 너희가 행사를 축하하면 새로운 자들은 열의를 가질 것이다. 너희가 해마다 이 행사를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행사를 한번 축하하면 너희는 수료식을 치른다. 너희는 영구히 수료식을 축하할 것이 아니냐? 이것에 어머니들과 절반의 쿠마르들이 포함되어 있다. 판다바들만 이것을 축하하는 것은 아니다. 쿠마리들과 선생들도 축하할 것이다. 심지어 절반의 쿠마리들도 축하할 것이다. 모든 이가 함께 이 행사를 축하할 것이다. 그것이 괜찮으냐? 쿠마리인 너희는 삭티들이 아니냐? 따라서 너희는 삭티가 되었다는 행사를 축하할 것이 아니냐? 앗차.

자아를 위해 한결같이 좋은 염원을 품는 자들에게, 자아변화의 과제에서 변함없이 첫째가 됨으로써 이 학과목에서 1등을 차지하는 자들에게, 생각, 말, 연결에서 변함없이 모든 이에 대해 무한한 의식의 화신인 자들에게, 한결같이 청결함과 조심성을 유지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순수하고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쿠마르들의 그룹을 만나심.

너희들 모두 끊임없이 제 스스로를 초연한 관찰자로 경험하고, 매 발걸음마다 아버지의 변함없는 동반자로 경험하느냐? 변함없이 초연한 관찰자인 자들은 모든 행위를 행하고 모든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카르마의 어떠한 굴레에서도 벗어난 상태로 아버지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런 식으로 초연한 관찰자임을 경험하느냐? 어떠한 신체감각도 너희를 굴레에 묶지 않게 해라. 이것을 초연한 관찰자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너희는 그러한 초연한 관찰자들이냐? 어떤 행위가 너희를 굴레로 묶으면 그럴 때는 초연한 관찰자라고 불리지 않는다. 그것은 사로잡히는 것이라고 불리지, 초연한 관찰자라고는 불리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너희의 눈조차도 결코 너희를 속이게 허용하지 마라. 육신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눈에 기만당한다는 뜻이다. 너희의 어떠한 신체감각도 너희를 속이게 하지 마라. 초연한 관찰자로 머물며 아버지의 변함없는 동반자로 남아있어라.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를 기억해라. 위대한 영혼들이나 도구 영혼들을 기억하지 말고, 단지 바바만 기억해라.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너희는 아버지를 먼저 기억하느냐, 도구 영혼들을 먼저 기억하느냐? 변함없이 아버지 한 분에게만 속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마라. 영혼들이 협조적일지는 몰라도 동반자들은 아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너희들의 동반자다. 협조적인 영혼들을 동반자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그들은 봉사에서 한결같은 동반자들이지만, 아버지만이 봉사에서 너희의 동반자다. 협조적인 도구라는 그러한 의식의 화신이 되어라. 어떤 육신의 존재를 동반자로 삼는다면 너희는 날아다니는 단계를 경험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상황에서 바바를 기억해라. 쿠마르들은 더블 라이트 상태냐? 너희에게는 어떤 산스카르나 성질의 무게도 없다! 너희는 낭비적인 생각의 무게도 없다. 이것을 더블 라이트하다고 한다. 더 가벼워질수록 너희는 날아다니는 단계를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아주 약간이라도 노력해야 한다면 틀림없이 뭔가 부담이 있다. 그러므로 “바바, 바바!”라는 지원을 취해서 계속 날아다녀라. 이것이 너희들의 불멸하는 지원이다.

영적인 청년 그룹은 자애로운 평화 운동가들의 그룹이다. 너희는 온 세상 전체에 평화를 세우는 한결같은 도구들이다. 저 사람들은 평화를 지 못함을 퍼뜨리는 반면 너희는 평화를 퍼뜨린다. 너희들은 제 스스로 이렇다고 여기느냐? 정치인들과 심지어 밥다다까지도 청년 그룹에 희망을 가진다. 너희들은 이 희망을 실현시키는 자들이 아니냐? 자녀들은 언제나 각자 제 아버지의 희망을 이루어줄 것이다. 그러니 성공의 별이 되어서 너희가 승리하는 보석이라는 큰 소리가 정부에 도달하게 만들어라. 자 이제 우리는 어떤 그룹이 이 깃발을 먼저 어디에 올릴지 볼 것이다. 너희의 힘을 결코 허투루 쓰지 마라. 너희에게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한 사람이 약해지면 많은 이들이 그 한 명과 연결된다.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라. 너희가 뭘 하든 남들이 그것을 보면 그들도 역시 똑같이 할 것이다. 따라서 평범한 행위를 행하지 마라. 너희는 끊임없이 고귀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이고 흔들림 없이 머무는 자들이다. 앗차.

작별을 고했을 때 자녀들 모두에게 굿모닝 아침인사를 하심.

축복의 땅 마두반 어디서나 고귀한 영혼들과 특별한 영혼들 모두를 직접 보면서 밥다다는 모든 이에게 사랑과 기억을 주며 굿모닝이라고 아침인사를 한다. 좋은 아침 (굿모닝)이란 하루 내내 상서롭고 고결한 상태로 머문다는 의미, 즉 너희가 하루를 보내면서 종일토록 사랑과 기억으로 부양 받는다는 의미다. 이 사랑과 기억은 고귀한 부양이다. 끊임없이 이 부양 안에 머물며 신의 이 사랑과 기억을 모든 영혼들에게 주어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고결한 부양을 줘라. 사랑과 기억은 부양이 주어지는, 부양의 그네다. 좋은 아침은 강력한 감로인데 그것을 약품이라 하든 풍요로운 음식이라 하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불러라. 좋은 아침은 너희를 매우 강력하게 만드는

아침이고, 부양의 사랑과 기억은 그네다. 끊임없이 이 그네를 타며 항상 이 힘과 함께 머물러라. 이런 식으로 이 형태에 변함없이 머물도록 자녀들 모두에게 굿모닝 아침인사를 보낸다. 앗차.

Blessing: 모든 과제의 과거와 미래를 알면서 그것을 행하는, 지식이 많은, 트리칼다르시 영혼이 되어라.

트리칼다르시인 상태에서, 즉 지각에 시간의 세 측면에 대한 지식을 담고서 행동하는 자녀들은 그 행위의 과거와 현재를 고려하고 매 행위에서 성공을 달성한다. 너희 앞에 무슨 과제가 있든지, 그냥 그것을 시작할 정도로 바쁘지는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 행위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보는 습관을 들여라. 트리칼다르시 단계에 안정해 있으면서 행동해라, 그러면 어떠한 행위도 낭비되거나 평범하지 않을 것이다.

Slogan: 너희의 충족되고 행복한 삶으로 봉사해라, 그러면 너희가 참된 봉사자라고 불릴 것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